



홍콩 사태로 아시아 금융중심지 재편 가능성



하나은행

조*경/0118430**/2020-08-13 09:44

< 요약 >

- 최근 홍콩의 금융중심지 기능 약화 우려로 글로벌 금융중심지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금융중심지의 핀테크 산업 경쟁력이 부각
 -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던 홍콩은 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미국이 경제적 특별지위를 박탈함에 따라 금융중심지 입지가 약화될 우려
 - (싱가포르) 홍콩과 유사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유력한 금융중심지 대안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핀테크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 중
 - (중국) 최근 주요 금융중심지(상하이, 베이징, 선전) 위상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홍콩의 금융기능을 점차 흡수해 금융중심지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
 - (일본) 도쿄를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금융도시, 도쿄」 구상을 추진하고, 'FinCity.Tokyo'를 출범. 정부주도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모색
- 국내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위상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상이 낮은 편이며 향후 정부의 과감한 제도 개선 및 디지털 금융허브 구축이 필요
 - '03년 이후 정부의 국내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으로 자본시장은 규모 확대와 질적 성장을 시현
 - 최근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아시아 금융중심지 대비 핀테크 경쟁력도 낮은 수준
 - 국내 금융중심지는 아시아 주요 경쟁지역 대비 비즈니스 환경(제도 및 규제), 인적 자원, 인프라 부문의 개선이 필요하나 해결에 장기간 소요 예상
 - 따라서 정부는 금융중심지 입지를 약화시키는 제도 및 규제의 복잡성, 세제 등의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
 - 또한 최근 금융중심지 역량 중 핀테크 경쟁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핀테크 중심의 디지털 금융허브를 구축하고 데이터 센터 구축 및 유치도 적극 모색

연 구 위 원 송 재 만 *****@*****.**

I. 금융중심지 개념 및 구성 요건

-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 금융거래가 수행되는 곳을 의미
-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핵심 구성 요소는 비즈니스 환경, 인적자원, 인프라 등이며, 최근 펀테크 산업 경쟁력도 부각
 - 글로벌 금융중심지지수(GFCI)는 경쟁력 분석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금융중심지 경쟁력 순위를 산출
 - 금융중심지에 대한 국제적 평가 및 인지도를 나타내는 GFCI(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는 z/yen group에서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발표
 - 경쟁력 분석은 비즈니스 환경, 인적 자원, 인프라, 일반 경쟁력, 금융산업 발전 등 5개 분야를 구분하여 평가하며, GFCI 27('20.3월)의 경우 138개 지표를 이용
 - 온라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중심지 경쟁력 부문 중 비즈니스 환경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조사
 - 중요도는 비즈니스 환경, 인적자원, 일반 경쟁력, 인프라, 금융분야 발전 정도 순
 - '19년부터 GFCI 발표 시 펀테크 경쟁력 지수가 공개되며 펀테크 산업 역량이 금융중심지의 중요 평가 요소로 부각

그림1 | 글로벌 금융중심지 경쟁력 요소 및 주요 내용
조*경/0118430**/2020-08-13 09:44

구성 요인	비즈니스 환경	인적자원	일반 경쟁력	인프라	금융분야 발전 정도
주요 내용	정치적 안정, 법치주의 수준 제도 및 규제 환경 거시경제 환경 세금 및 비용 경쟁력	전문인력 보유 수준 노동시장의 유연성 교육 및 발전 수준 삶의 질	도시 브랜드 및 명성 혁신 수준 문화적 다양성(매력) 타 금융중심지와의 상대적 지위	건설 인프라 ICT 인프라 교통 인프라 지속 발전 가능성	금융산업 클러스터의 발전 수준 자본 가용성 시장 유동성 경제적 성과
경쟁력 평가 중요도	높음				낮음

자료 : z/yen group

II. 아시아 금융중심지 현황 및 환경 변화

1. 아시아 금융중심지 현황

■ 아태지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많은 글로벌 금융중심지를 보유

- '20.3월 발표된 GFCI 27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중심지는 총 120개이며, 지역별로는 서유럽이 31개, 아태지역에는 27개가 위치
 - 동유럽/중앙아시아 15개, 중동/아프리카 13개, 중남미와 북미가 각각 11개
- 아태지역 내 국가별 글로벌 금융중심지 수는 중국이 10개로 가장 많으며, 인도 3개, 일본, 호주, 한국이 각각 2개 등으로 조사
 - 중국은 미국(7개)보다 많은 금융중심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하이(4위), 베이징(7위), 선전(11위) 등은 글로벌 금융중심지 중 상위권

■ 글로벌 상위 금융중심지는 모든 세부 항목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나타냄

- 뉴욕과 런던의 경쟁력이 모든 항목에서 타 도시대비 높게 조사되었으며, 홍콩, 싱가포르, 도쿄, 상하이, 베이징 등 아시아 금융중심지도 10위권내 위치
- 다만, 최근 브렉시트와 홍콩 사태의 영향으로 런던과 홍콩 순위는 하락
 - GFCI 25('19.3월) 당시 비즈니스 환경은 런던이, 인적 자원과 인프라는 홍콩이 1위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발표된 GFCI 27에서는 뉴욕이 전 부문 1위를 기록

조*경/0118430**/2020-08-13 09:44

표1 | GFCI 27 주요 부문별 금융중심지 Top10 ('20.3월)

순위	비즈니스 환경	인적 자원	인프라	금융산업 발전	일반 경쟁력
1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2	London	London	London	London	London
3	Hong Kong	Hong Kong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4	Singapore	Luxembourg	Tokyo	Zurich	Hong Kong
5	Frankfurt	Singapore	Hong Kong	Frankfurt	Oslo
6	Zurich	Shanghai	Geneva	Hong Kong	Tokyo
7	Chicago	Beijing	Zurich	Geneva	Paris
8	Geneva	Paris	Stockholm	Amsterdam	Dublin
9	Toronto	Chicago	Shanghai	Shanghai	Shanghai
10	Montreal	Dubai	San Francisco	Tokyo	Beijing

자료 : z/yen group

2. 최근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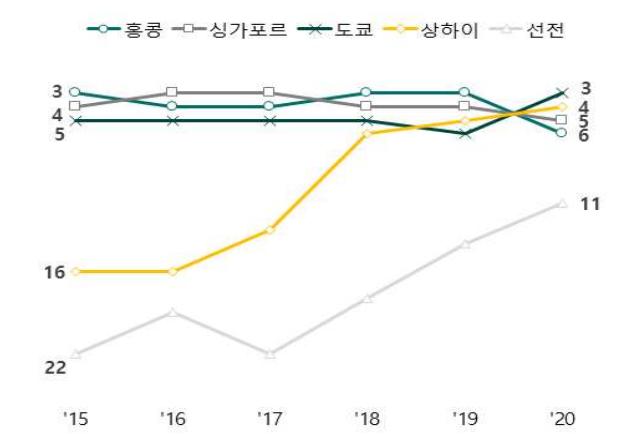
- 홍콩은 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미국이 경제적 특별지위를 박탈함에 따라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
 -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일(5/28일)에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전격 통과시켰으며, 이에 미국은 홍콩의 경제적 특별지위를 박탈
 - 그동안 미국은 미국-홍콩 정책법(U.S. Hong Kong Policy Act of 1992)에 따라 홍콩을 중국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 관세 및 통상 협약에 따라 최혜국 대우 적용
 - 홍콩 국가보안법 마련으로 대만과 홍콩 등 민주화 시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로 금융시장 안정성이 훼손되는 등 **對홍콩 투자 매력이 상실되어 금융중심지로서의 입지 약화 우려**
 - 홍콩은 GFCI 3~4위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홍콩 시위 과정에서 홍콩 내 투자자금 철수 및 시장신뢰도 하락 등의 우려가 확산되며 금융중심지 경쟁력 둔화
- 최근 글로벌 금융중심지 역할에 있어 핀테크 산업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각국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강화하는 추세
 - 싱가포르, 중국, 일본은 정부주도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내 핀테크 허브 입지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
 - 국내의 경우,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내 '핀테크 혁신'이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

표2 | 홍콩의 특별 지위 상실 영향

對美 무역 위축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별관세 취소 조치로 무역과 물류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 • 글로벌 기업들의 홍콩 법인을 통한 미국 중계무역 위축 가능성
해외 기업 이탈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비자 혜택 철회 등 영업환경 악화로 홍콩에 아시아 지역 거점을 둔 글로벌 기업들의 이탈 압력 증대 (9천 여개 외국기업이 진출)
자본이탈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신뢰도 하락 및 경기침체 속 정세불안이 지속될 경우 급속한 자본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 • 극심한 자본 유출 발생 시 환율 폐그제 위협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2 | 해외 금융중심지 GFCI 순위 추이



3. 국가별 대응 현황

가. 싱가포르

- 홍콩과 오랜기간 경쟁해 온 싱가포르는 홍콩과 유사한 장점 및 금융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유력한 아시아 금융중심지 대안으로 부상
 - 낮은 세율(법인세 17%), 영어 공용화, 산업 인프라 등 홍콩과 유사한 비즈니스 편의 환경을 보유
 - '19년 이후 싱가포르의 외화예금이 약 3배 증가하는 등 홍콩 정세 불안으로 일부 부유층과 외국인 자금이 싱가포르 등으로 이동
- 정부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서의 경쟁력 강화 중
 -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확대
 -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건설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는 한편, 글로벌 핀테크 스타트업 허브가 되기 위해 창업육성 단지 조성, 규제 샌드박스 운용 및 각종 지원 정책을 실시
 -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으로 싱가포르 내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아태지역에서 중국과 인도에 이어 가장 큰 규모의 핀테크 투자국으로 발돋움
 - 코트라에 따르면, '19년 상반기 싱가포르 핀테크 투자액은 약 4억 5천만 달러 수준
 - GFCI Fintech 경쟁력 지수 순위는 '19.9월 8위에서 '20.3월 5위로 상승폭도 큰 편

그림3 | 홍콩 및 싱가포르의 외화예금



자료 : CEIC

표3 | GFCI Fintech 경쟁력 지수 순위 추이

중심지	GFCI 26 ('19.9)	GFCI 27 ('20.3)
뉴욕	3	1
베이징	1	2
상하이	2	3
런던	6	4
싱가포르	8	5
선전	5	6
홍콩	7	7

자료 : z/yen group

나. 중국

- 중국은 2009년 「상하이 금융중심지 전략」 발표 이후, 2018년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대외개방 촉진 및 국제 금융중심지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
 - 핀테크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외자 금융회사 시장 진입 확대 및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금융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노력
 - 특히, 상하이 자유무역구 린강신구에 금융 선행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19.6월 상하이 증권거래소 내 중국판 나스닥인 커창반을 신설
- 중국 정부는 상하이 및 선전 등 주요 지역의 금융기능을 강화하여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량을 확대할 방침
 - '20.3월 GFCI 기준 상하이(4위), 베이징(7위), 선전(11위)이 상위권에 위치하는 등 중국 주요 금융중심지 위상이 강화
 -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홍콩과 접경 지역인 선전을 세계적인 혁신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며, 금융중심지 역할 수행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
 - 중국은 '웨강아오 다완취' 프로젝트를 통해 강력한 산업 기반(선전), 자유로운 경제 시스템 (홍콩), 개방형 무역/투자 시스템(마카오)을 통합해 첨단 산업 및 금융중심지로 육성

표4 | 중국 금융업 대외개방 조치 및 로드맵

구분	주요 내용 조*경/0118430**/2020-08-13 09:44
'18.6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과 자산관리회사(AMC) 지분 제한 폐지, 외국계 은행 중국내 현지법인과 모은행 지점 동시 설립 가능 -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생명보험회사의 외국인 지분 비율 상한 51%까지 확대 - 합자증권사의 역내 주주 중 본토 증권회사 포함 조건 폐지 - 5.1일부터 후강통과 선강통의 일간 투자한도 4배로 확대 - 보험 증개업무와 손해사정업무 개방, 외국계 보험 증개회사의 경영범위 제한 폐지
'18년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회사, 금융리스회사, 자동차할부 등 금융분야의 외국자본 유치 장려 - 상업은행 신규 설립 금융자산투자회사와 자산운용사의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 폐지 - 외국계 은행의 업무범위 확대, 합자증권사 업무범위 제한 폐지 - 외국계 보험회사의 설립전 2년간 중국내 사무소 개설 요건 폐지 - 후룬통(상하이-런던 주식 교차거래)의 개통
'19.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원, 금융업(주식, 채권, 자산운용시장) 대외개방을 위한 11개 조치 발표
'19.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관리국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의 투자한도 폐지 발표
'19.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자본 지분제한 조기 폐지 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회사('20.1.1), 자산운용사('20.4.1), 증권회사('20.12.1)부터 폐지 예정

자료 : 중국인민은행, 자본시장연구원 자료 재인용

[참고] 중국, '웨강아오 다완취' 프로젝트

- 국무원은 홍콩, 마카오, 광동성 9개 도시를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 첨단 기술 기반 도시군으로 개발하는 '웨강아오 다완취 발전계획 개요'를 발표('19.2월)
 - '웨강아오 다완취' 프로젝트는 웨강아오(웨: 광동성, 강: 홍콩, 아오: 마카오)+ 다완취(Greater Bay Area)를 의미
 - 본 프로젝트는 '22년 첨단산업 특화 클러스터', '35년까지 선전과 광저우 등 광동성 9개 도시와 마카오, 홍콩을 합친 총 11개 지역을 단일 경제권으로 육성할 방침
 - 특히 중국 정부는 선전을 적극 육성하여 첨단 산업 및 금융중심지로 육성
 - 선전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최초 경제특구로 지정 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18년 기준 GDP 규모가 홍콩을 추월
 - ※ '18년 GDP 규모(조 위안): 홍콩 2.40, 선전 2.42
 - 선전은 중국 내 도시 종합 경쟁력 순위에서 '14년 이후 5년 연속 1위를 차지, 국무원은 '25년까지 '국제 혁신도시'로 개발할 방침
 - 또한 금융, IT, 교육, 과학기술 등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시스템도 적극 개선
 - 향후 중국은 '웨강아오 다완취' 프로젝트를 통해 정보기술(IT), 바이오, 5G, 친환경차, 재생에너지, 금융 등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도쿄만과 경쟁이 예상

조*경/0118430**/2020-08-13 09:44

표5 | 세계 주요 만(Bay) 경제권 지표

구분	웨강아오 다완취	도쿄만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면적(km ²)	5만 6,000	3만 6,900	2만 1,500	1만 7,900
인구(명)	7,125만	4,400만	2,020만	770만
GDP(달러)	1조 6,418억	1조 7,742억	1조 6,575억	7,812억
주요 산업	IT, 금융, 제조	첨단제조, 도소매	금융, 부동산, 의료보건	IT
물동량(TEU)	6,834만	773만	625만	237만
연간 여객수(명)	2억	1억 2,000만	1억 3,000만	8,000만
세계 500대 기업	17개	60개	22개	2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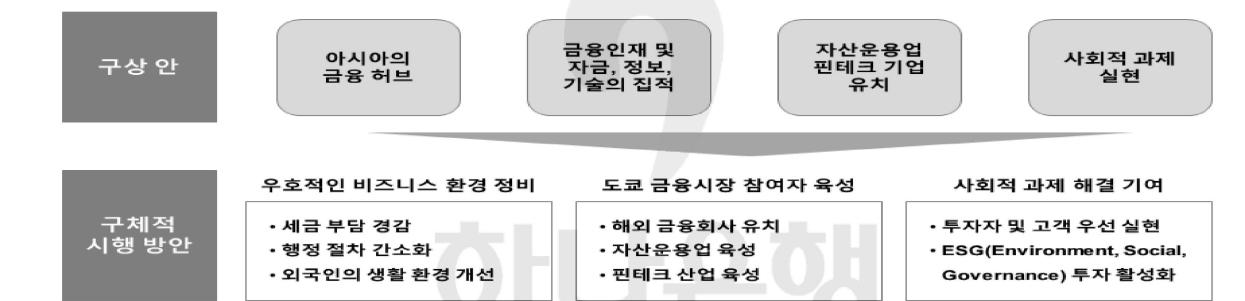
자료 : 언론보도 종합

다. 일본

■ 일본은 정부주도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금융중심지 강화 전략을 모색

- 일본은 도쿄를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17.11월 「국제금융도시, 도쿄」 구상을 추진 중이며, '19.4월 'FinCity.Tokyo'를 출범시켜 지원
 - 'FinCity.Tokyo'는 국내외 정보 수집, 정책 제언, 관계기관과의 연계, 해외 금융회사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 해외 투자자 니즈를 정부, 지자체 등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
- 구상 안에는 해외 금융회사 유치에 중요한 요소인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조세 부담 경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각종 혜택 마련
 - 최근 홍콩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홍콩내 헤지펀드 대상으로 도쿄로의 사무소 이전 인센티브 제시(단기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실시, 무료 사무공간 제공 등)

그림4 | 「국제금융도시, 도쿄」 구상 주요 내용



자료 : FinCity.Tokyo

조*경/0118430**/2020-08-13 09:44

표6 | 아시아 금융중심지 간 비교(종합)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일본	한국
금융중심지 위치 변화 [GFCI 순위] ('15 → '20)	↓ (3위 → 6위)	— (4위 → 5위)	↑ 상하이(16위 → 4위) 베이징(29위 → 7위) 선전(22위 → 11위)	↑ 도쿄(5위 → 3위)	↓ 서울(7위 → 33위) 부산(24위 → 51위)
환경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국양제 시스템 붕괴 우려, 투자자 신뢰 하락 미국의 홍콩 특별 지위 상실(무관세, 비자 혜택 철회 등 영업환경 악화) 글로벌 기업 이탈 압박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콩의 역할, 싱가포르로 점차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년 하반기 이후 싱가포르 외화예금 3배 급증 유력한 금융중심지 대안으로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이 및 선전 등의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콩의 기능 점차 이동 '웨강아오 다완취'를 통한 첨단산업 및 금융중심지 육성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쿄를 글로벌 금융중심지 대체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추진 (금융강국 추진 전략) 해외 우수인재 유치 노력 강화 홍콩 헤지펀드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실과 역량에 기반한 특화 분야 육성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자산운용업 집중 육성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펀테크 생태계 활성화 서울과 부산 인지도 제고 노력
금융중심지 강점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된 금융시장, 고정 환율제 낮은 세율(법인세 16.5%) 對 중국 관문 역할 노동시장 유연성, 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콩과 유사한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된 시장, 영어 낮은 세율(법인세 17%) 동남아시아 진출 기지 펀테크 허브 입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시장 개방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시장 성장 잠재력 커뮤니티 신설 펀테크 육성 강화, 금융 인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주도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비자, 조세, 행정절차 등) 펀테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시장 성장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연금 자산 축적 혁신기업 생태계 확산 우수한 IT 인프라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III. 국내 금융중심지 추진 현황 및 성과

1. 금융중심자 기본계획 수립

- 정부는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내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중심지법 제정 및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발표
 - '07.12월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를 규정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법)'이 제정
 - 핵심내용은 금융클러스터 조성, 3년 단위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 구축 등이며, '08년부터 '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을 추진
 - ※ 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08~'10) 기간 중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설립('08.9월) 되었으며, 서울(종합), 부산(특화)이 금융중심지로 지정('09.1월)
 - '20.5월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2) 안이 수립되었으며,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을 목표로 3대 중점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시
 - 3대 중점전략은 ①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 ② 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③ 글로벌 역량의 집중 : ASEAN 진출 확대로 구성
 - 3대 추진과제로는 ①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 지원(핀테크 혁신,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등), ② 금융인프라 국제화(금융데이터 활용도 및 자금세탁 방지 제도 제고 등), ③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금융중심지 성공적 조성, 지역별 전략 수립 등)로 구분

그림5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추진 현황(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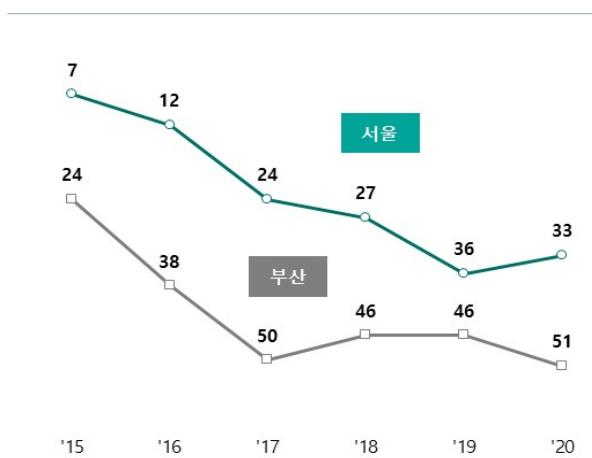


자료 : 금융위원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 국내 금융중심지 글로벌 위상

- 2003년 이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자본 시장의 규모 확대와 질적 성장 사연
 - 정부는 한국투자공사 출범('05), 자본시장법 제정('07), 금융중심지 선정('09), 해지펀드 도입('11),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16) 등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
 -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주식시장 시가총액 및 상장회사 수는 세계 10위권에 진입, 자산운용 부문도 제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양적·질적 성장을 달성
 - 주식 시가총액/외국인 보유액(조원, 연말 기준): 1,305/431('13) → 1,717/593('19)
- 정부의 금융 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의 글로벌 위상은 개선이 더딘 상황
 - '15년 서울과 부산은 각각 7위, 24위를 기록한 이후 순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아시아 내에서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 이어 9~10위권 수준
 - 특히, 외국계 금융회사는 바젤III 등 글로벌 규제강화에 따른 비용축소, 국내 수익성 저하 영향으로 지점 철수 및 영업 축소로 대응해 진입이 정체
 - 핀테크 경쟁력도 서울을 중심으로 다양한 육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 주요 금융중심지 특히, 아시아 금융중심지 대비 낮은 수준
 - '20.3월 현재 베이징(2위), 상하이(3위), 싱가포르(5위), 선전(6위), 홍콩(7위), 도쿄(10위) 등 GFCI Fintech 저수 10위권 내 위치, 서울은 순위 밖

그림6 | 국내 금융중심지 글로벌 위상(GFCI 순위) 변화



자료 : z/yen group, GFCI 각년도 3월 기준

표7 | 최근 외국계 금융회사 진입 현황 (단위: 개)

구분	'15	'16	'17	'18	'19
은행	60	60	55	56	53
금융투자	56	56	59	57	59
보험	29	30	30	30	29
여신전문	15	14	16	12	13
저축은행	6	8	8	8	8
합계	166	168	165	163	162

자료 : 금융위원회

3. 한국의 대응

- 금융중심지 재편 가능성에 확대됨에 따라 아시아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경쟁력이 부족한 부문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
 - 국내 금융중심지는 아시아 주요 경쟁도시 대비 비즈니스 환경(제도 및 규제), 인적 자원, 인프라 부문의 개선이 필요하나 해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
 - 비즈니스 환경의 경우, 그동안 정부차원의 제도 및 규제 개선 추진에도 불구하고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해외 금융중심지 대비 매력도가 떨어짐
 -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중심지만을 위한 세제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¹⁾하였으나 법인세, 소득세 등에서 해외 주요 금융중심지(홍콩, 싱가포르 등)와 격차가 존재
 - 금융전문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육성 방안 및 충분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외국인 주거, 교통 등 생활 및 업무 환경 개선, 영어 구사력도 제고
- 국내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제도 개선 및 디지털 금융허브 구축이 필요
 - 정부는 금융중심지 입지를 약화시키는 각종 제도와 규제의 복잡성, 세제 등의 문제를 해외 경쟁도시를 참고하여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일본이 추진 중인 정부주도 인센티브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 또한 최근 펀테크 역량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펀테크 산업 중심의 디지털 금융허브 구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 디지털 금융허브 육성을 위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 특히, 스마트시티를 글로벌 펀테크 스타트업 허브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
 - 이를 위해서는 금융 및 융복합형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혁신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금융규제샌드박스 적용 등 규제 완화가 수반되어야 함

1) 제4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은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법인세 및 소득세, 불투명한 금융규제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으나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금융허브만을 위한 세제와 고용제도 등의 개편은 한계가 있다"고 언급. (2020.7.16)

[참고문헌]

- 금융위원회(2020.7), "제4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2020.5), "제5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2)"
(2019.8),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정기국회 보고자료
관계부처합동(2020.7),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자본시장연구원(2019.12), "금융중심지 위상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연구"
서울신문(2019.3), "美 보란듯 홍콩~마카오~광동성 뛰어 '중국판 실리콘밸리' 야심"
주간동아(2020.6), "돈도, 사람도 떠나는 홍콩 엑소더스 개봉박두?!"
한국금융연구원(2019.1),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FinCity.Tokyo(2020.3), "国際金融都市・東京構想", FinCity Global Forum
KOTRA(2020.1), "싱가포르 펀테크 규제 및 진출 가이드"
(2019.9), "2019년 싱가포르 상반기 경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Z/Yen(2020.3),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27"
(2019.3),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25"

하나은행

조*경/0118430**/2020-08-13 09:44

하나 CEO 경영이슈
Hana CEO Issues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TEL 02-2002-2200

e-mail : ***aif@hanafin.com

<http://www.hanaif.re.kr>



하나은행

조*경/0118430**/2020-08-13 09:44